



김종식 완도군수가 다도해일출공원의 안도타워(높이 51.4m)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공원은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육성 사업에 뽑혀 152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가장 특색 있고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돼 대상과 사업비 3억원을 받았다. 프리랜서 오종찬

# 빛 없이 10년, 그래도 할 건 다한 군수님

### 3연임 김종식 완도군수의 '부채 제로' 경영



국내 수산업 1번지로 꼽히는 전남 완도군이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군청이 지고 있던 빚 2억5000만 원을 모두 갚음으로써 부채 0(제로)의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이다. (본지 4월 16일자 19면)

완도군은 2002년 7월 김종식(61) 군수 취임 때 빚이 137억원에 달했다. 당시 연간 예산의 5%에 이르는 규모였다. 김 군수는 10년간 세 차례 연임하면서 기존 부채를 꾸준히 갚고 새로운 빚은 내지 않았다. 그는 “표를 얻으려면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유혹을 양심으로 물리쳐 왔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부채 제로 살림’의 소신과 비결을 들어봤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비 지원에 눈멀어 지방비 의무부담 비율이 큰 사업을 탈락될까 가져오고, 사업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 일을 벌이고, 빛의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결국 재정 압박이 심해져 꼭 해야 할 사업은 못 하고 만다. 농어촌 자치단체는 빚을 내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

-선거를 세 번이나 치르면서 공약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재원은 생각하지 않은 채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부터 생각한다. 군 예산으로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따진 다음 결정했다. 빚을 내야 할 사업은 아예 제외했다.”

-군 살림을 너무 소극적으로 꾸린 것은 아닌가.  
“다른 지자체가 한 것은 거의 다 하고 있다. 기존 부채까지 이자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서둘

러 상환하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은 거의 모두 했다. 뒷짐만 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선거 때 주민들에게 표로 심판당하게 되므로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국비·도비를 많이 가져다 쓴다는데.  
“예산 확보 활동과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에 한 해 40~50회 간다. 중앙부처에 가려면 자동차·비행기·자동차를 갈아타고 6시간을 가야 한다. 전화로도 일을 많이 해결한다. 부처의 누구를 만나고 통화하느냐가 중요한데,

공약·사업구상 땀 살림부터 고려  
꼭 필요한 개발·숙원 사업은  
정부와 도 예산 최대한 활용  
예산 따라 서울 출장만 연 50회

고시(행시 24회) 동기와 선후배들 덕분에 일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발 빠른 대처로도 유명한데.  
“중앙부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통화하다 보면 그들의 계획이나 구상 등을 빨리 알 수 있다.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 알찬 계획서를 만들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모사업에도 유리하다.”

김 군수는 “빚을 내서라도 할까 하고 3년 전부터 유혹을 엄청 느껴온 사업이 딱 하나 있었다”고 토로했다. 누수에 따른 손실을 없애기 위한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미뤄 왔더니 내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사업이 됐다. 그는 “유혹을 참은 결과 군 예산을 아꼈다”며 웃었다. 완도=이해석 기자 lhsaa@joongang.co.kr

**당신의 소중한 금 어디에 맡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빛나는 금에 진정한 가치까지 찾아드리는 **순금나라** '정확한 중량', '정확한 감정'으로 보다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금매입 전문 기업 **순금나라!**

매입취급품목: 골드바, 순금제품, K18, K14, 백금, 치아금, 은수저 등의 귀금속 골드바 제테크를 원하시는 고객을 위해 골드바를 판매합니다.

**실버바업그레이드 출시** silver bar up grade  
1kg, 500g 실버바 판매  
중국의 국제금융학자 송홍빙은 '화폐전쟁'에서 "15년 후에는 은이 금보다 비싸질 것이다"

**2012년 동물보호사진 공모전**  
동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순금나라 홈페이지 참조  
www.soongumnara.co.kr

검색창에 **NAVER** 순금나라 **Daum** 순금나라 **네이버**를 검색하세요. **전국어디서나 1544-9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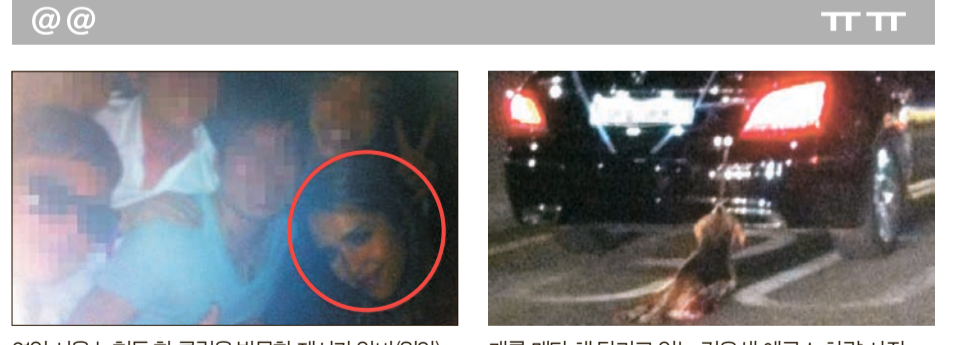
## 삼성전자, 채용 때 비흡연자 가산점 검토

삼성전자가 신입 사원 채용 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22일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퍼지는 데 맞춰 채용 때 비흡연자를 우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 여부는 소변이나 모발 검사로 사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입사지원서에 흡연 여부를 쓰도록 해 이에 따라 가산점을 준 뒤 입사 후

검사에서 허위 기재 여부가 드러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흡연 여부를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곳은 있지만 입사 시 가산점을 주는 곳은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입원 승진과 해외 주재원 발령, 해외 연수자 선발 때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바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21일 서울 논현동 한 클럽을 방문한 제시가 알바(왼안).

개를 매단 채 달리고 있는 검은색 에쿠스 차량 사진.

### 제시가 알바, 강남 클럽에 뺏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제시가 알바(31)가 22일 깜짝 방한 소식과 함께 트위터 등 SNS에서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새벽 한 트위터어인(트위터 사용자)이 “서울 강남구 O클럽에 제시가 알바가 있다”는 글과 함께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클럽 측에 따르면 제시가 알바는 21일 오후 9시쯤 남편과 개인 경호원 등을 데리고 11시쯤 클럽을 방문했다. 제시가 알바는 최근 일본 여행 중이었으며, 21일 오후까지도 일본에서의 저녁식사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이가혁 기자 gawang@joongang.co.kr

### 개 매달고 마구 달린 '악마 에쿠스'

자동차 뒤에 개를 묶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진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에쿠스 뒤에 개가 묶여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올린 네티즌은 “서울 한남대교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목격했다”며 “트렁크에 강아지를 목 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더군요”라고 했다. 사진은 ‘악마 에쿠스 사건’으로 불리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회는 운전자를 찾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시훈 기자 wonderman@joongang.co.kr